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7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18일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 계엄사태·의정 갈등에… 전남 의대 내년 개교 무산

목포대·순천대 통합 등 논의 불구  
설립 추진 동력 사실상 상실  
김영록 지사 “2027년 개교 목표”

전남의 ‘30년 숙원 사업’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약속했던 국립의대 설립이 목포·순천대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과 비상계엄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 차기 정부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답회를 갖고 “전남 국립의대는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서열 1·2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하면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정책적 판단을 내려준 데 따라 목포·순천대 통합까지 일궈내며 후속 절차를 밟아왔지만 지속된 의정 갈등과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올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립 의대’ 설립은 대통령이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시화됐다.

인구 180만명의 전남도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전북(인구 175만명)에 2개, 충북(159만명)에 2개, 강원도(152만명)에도 4개가 있는 의대가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이어져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8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 때문에 목포대가 지난 1990년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전남이 30년 넘게 줄기 차게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진보·보수 어느 정부에서도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반응도 뜨거웠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국립 의대(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정부의 1도(道) 1 국립대 정책에 부합해 목포·순천대의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추진’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침을 ‘의료개혁 논의 테이블’에 상정할 것, ‘2026학년도 통합 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 배정’ 등 전남 의료복지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과 맞물려 ‘동부권 훌대론’을 잠재우기 위한 동부지역본부 확충, 순천·목포로 나눠 펼쳐졌던 ‘약대 유치’ 경쟁, 여수박람회를 계기로 이뤄진 SOC 확충,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SOC 신(新)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마다 끊이질 않았던 동·서부권으로 나뉜 지역 간 갈등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의대 설립에 대한 지역민들 공감대도 캐웠다.

전남도는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의대생들의 ‘정상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키로하면서 내년 개교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최근 김 지사와의 만남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정부 차원의 공약으로 공감되면서도 의대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 정국에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해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목포·순천대, 의료계 등으로 의대설립 공동 준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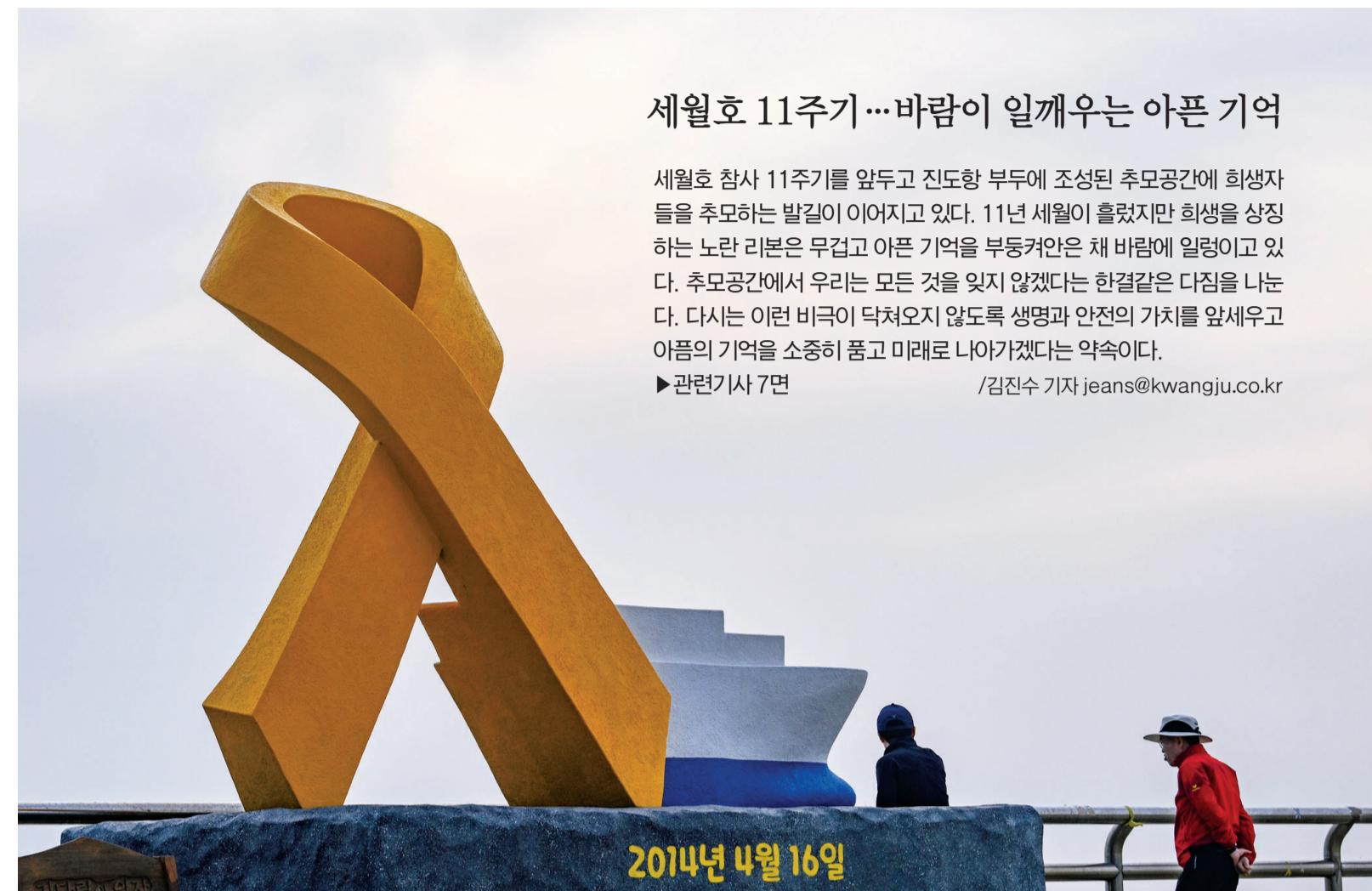
전남도는 최근 확정한 대선공약 견의과제 75건 중 핵심과제 20건 중 첫 마리에 목포·순천 통합 의대신설과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꼽았다.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양 대학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과 대학 기획처장, 의료기관장 등 20명 안팎으로 위원이 구성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2027년부터는 의대 정원 결정권을 의료인력 수급주체위원회에서 갖는 만큼, 의과대학이 없는 열악한 현실이 반영되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 세월호 11주기...바람이 일깨우는 아픈 기억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진도항 부두에 조성된 추모공간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1년 세월이 흘렀지만 희생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은 무겁고 아픈 기억을 부둥켜안은 채 바람에 일렁이고 있다. 추모공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잊지 않겠다는 한결같은 다짐을 낀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닥쳐오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앞세우고 아픔의 기억을 소중히 품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대선 경선룰 확정

찬성률 95.56%로 중앙위 통과

김두관 전 의원 경선 불참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게 됐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경선 규칙으로 결정했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이라 비판되며 주지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안건은 민주당 당헌 111조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반영했으며, 찬성을 96.56%로 통과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게 됐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경선 규칙으로 결정했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이라 비판되며 주지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14일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들과 협의 없이 결정한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주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 중앙위 신임 의장으로는 4선 민홍철의 원이, 부의장으로는 3선 송옥주·유동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4월 중순에...전남동부 내륙지역 1~5cm 눈

완연한 봄날씨를 보여야 할 4월 중순 전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구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오후 6시 해제됐다.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 해발고도 1088m에 위치한 관측소에는 3시부터 1시간 동안 2cm 안팎의 눈이 쌓인 것으로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구례에 15일 새벽까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며 “해발고도 1000m 이상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고 밝혔다.

15일 새벽까지 전남동부내륙 지역에는 1~5cm의 눈이, 그외 광주와 전남에는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싸락우박이 떨어지

는 곳도 예보됐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해안에는 15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 서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면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9~20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15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4~9도, 최고 17~21도)보다 3~8도 가량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

